

장티푸스·말라리아...세계 역사와 지도를 바꾼 전염병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세계 역사와 지도를 바꾼 바이러스 전쟁

도현신 지음

“알렉산더 대왕이 오랜 수명을 누렸다면 그가 다스린 제국은 그리스와 중동, 인도,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추가될 수도 있었다. 그 면적이라면 후대의 로마나 이슬람제국을 능가하는 강대한 세계 제국의 위용을 지녔을 것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은 말라리아로 인한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으로 끝났다. 평범한 전염병인 말라리아 하나가 위대한 세계 제국이 탄생하려는 것을 얹어 버린 셈이다. 이것이야말로 베이징의 나비가 날갯짓하면 뉴욕에 폭풍이 분다는 나비효과와 실제 사례가 아니었을까.”(본문 중에서)

코로나19 3차 팬데믹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연일 확진자 관련 뉴스가 보도되면서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조되고 있다.

코로나는 기존의 일상의 모습을 바꿔버렸다. 언택트, 온라인, 비접촉이라는 말이 하나의 고유명사가 된 지 오래다. 아주 미세한 전염성 병원체 바이러스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세계마저 흔들고 있다.

전염병은 칼보다 무서운데다 한 시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도 한다. 장티푸스, 말라리아, 페스트, 콜레라, 스페인독감 등... 코로나 19 확산을 계기로 역사에서 소환되는 전염병들은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바이러스로 읽는 전염병의 역사를 다룬 책이 나왔다. ‘지도에서 사라진 종교들’,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들’의 저자 도현신이 펴낸 ‘세계 역사와 지도를 바꾼 바이러스전쟁’은 한마디로 전염병으로 읽는 세계사다.

저자가 전염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린 시절 읽은 한 권의 소설 때문이었다. 조지 웰즈의 ‘우주전쟁’은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진 화성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지구인들은 화성인들에 맞설 수 없었지만 미생물인 세균 때문에 가까스로 살아남았다는 내용이다.

사실 전염병은 질환을 넘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요인이다. 인류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왔기에 인류 역사는 곧 바이러스 역사 할 수 있다. 전염병이 인류 역사인 동시에 운명을 좌우하는



유대인이 유럽인에 의해 강제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왼쪽)과 방글라데시 여성이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해 식수통에 필터를 씌워 물을 걸러내는 장면.

중요한 기제인 셈이다.

장티푸스는 아테네 황금시대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14세기 ‘죽음의 신’으로 불리는 흑사병은 유럽을 절망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아즈텍과 잉카가 무너진 것은 스페인 군대 때문이 아니라 천연두 때문이었다.

16세기,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정복한 데는 전염병이라는 변수가 있었다. 러시아인들은 불과 1세기 만에 광대한 시베리아를 누비고 다녔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러시아 사람들이 퍼뜨린 천연두와 티푸스, 매독 같은 전염병에 걸려 시베리아 원주민의 인

구가 크게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러시아의 지배에 맞서 저항할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역사에도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다. ‘조선왕조실록’ 중 ‘순조실록’(1821년 8월 13일)에는 평양 안팎에 괴질, 괴상한 병이 유행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병에 걸린 이들은 설사와 구토가 멈추지 않고 오줌을 누 수 없었다. 바로 콜레라 전염병이 원인이었다. 당시 열흘 동안 1000여 명이 죽었는데,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다.

콜레라의 창궐은 서구사회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상하수도 정비와 오폐수 정화시설이

대대적으로 설치된 것. 1848년부터 1854년까지 런던 등 대도시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것은 그러한 연유와 무관치 않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세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전문가들은 ‘세계화시대’가 더는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진단한다.

외국을 상대로 벽을 쌓는 ‘성곽국가’가 출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금의 코로나는 유럽의 흑사병처럼 자유무역체계를 무너뜨리고 “그 체제에 의존해왔던 국가들의 생명 또한 끝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다복스·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자본주의의 미래

폴 콜리어 지음·김홍식 옮김

2019 빌 게이츠 추천도서, 마이클 샌델 추천도서, 2019 한텔스블라트상 수상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여기에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 애컬로프는 “케인즈 이후 가장 혁명적인 저작”이라고 상찬했다. 바로 경제학자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폴 콜리어가 펴낸 ‘자본주의의 미래’가 그것. 저자는 IMF의 전략정책 부서, 세계은행 자문을 담당한 이력이 있다.

책을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는 “자본주의는 무찔러야 할 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합리적 인간”의 이기심에 호소하는 자본주의가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호혜성 윤리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 미래를 제시한다.

작금의 세계는 양극화, 빈곤의 심화로 공동체 붕괴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때 구원된 모두에게 번영을 약속했던 자본주의의 장밋빛 신화는 점차 저물어가고 있다. 과연 자본주의 체제에 미래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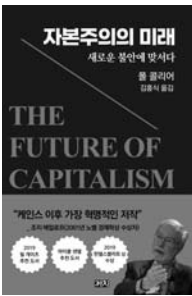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오늘날 세계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진단하며 실용주의 입장을 역설한다. 2부는 자본주의의 윤리적 토대 구축의 필요성이 주 내용이다. 콜리어는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느끼며 경제적 이득보다 사람들 사이의 존중을 통해 효용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3부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도시를 재생하고 대도시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대도시에서 과세할 방안 등을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4부에는 자본주의 미래를 위한 조건이 담겨 있다.

특히 저자는 공유 경제성을 회복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다른 무엇보다 호혜성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재생산을 강조한다.

〈까지·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피터 팬 사라진 그림자

리즈 브라즈웰 지음·성세희 옮김

2021년은 제임스 메튜 배리의 소설 ‘피터와 웬디’가 출간된 지 110주년이 되는 해다.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나라 네버랜드에 사는 피터 팬과 런던에 사는 웬디의 모험담을 그린 ‘피터와 웬디’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콘텐츠로 변주됐다. 1924년 무성영화로 만들어졌고 1953년에는 장편 애니메이션이 나왔다. ‘피터 팬’을 잊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디즈니가 기획하고 리즈 브라즈웰이 쓴 ‘피터 팬 사라진 그림자’가 출간됐다. 특히 ‘피터 팬’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40여 컷의 명장면도 함께 담겨 있어 보는 재미도 더했다.

열여섯 살 웬디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남동생들과 달리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모든 집안일을 한다. 그렇지만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웬디에게는 한가지 희망이 있는데, 자신의 영웅인 피터 팬이 남겨둔 그림자가 그것이다. 웬디는 언제나 피터가 그림자를 찾으러 와서 자신을 구원의 땅인 네버랜드로 데려가줄 거라 믿는다. 그렇게 4년을 버텼지만 웬디 앞에는 어른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웬디는 피터 팬 그림자를 후크에게 넘겨주고 네버랜드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웬디 스스로 모험의 땅으로 떠난다는 내용이 ‘피터 팬 사라진 그림자’의 줄거리이다. 독자들은 웬디가 현실이라는 장벽에 막혀 주저앉는 대신 미래를 찾아 떠난다는 데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편다.

그러나 네버랜드는 웬디가 상상했던 꿈 같은 세상이 아니라 위험이 도사린 땅이다. 아름다운 인어가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고 미끄러운 큐리말이 호시탐탐 요정을 노린다. 이 같은 모험담에는 피터 팬을 비롯해 웬디, 팅커벨, 후크 등 다른 주인공들의 뜻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리뷰·1만6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Fun한 클래식 이야기

김수연 지음

자신의 악기에 악마가 깃들었다고 믿었던 파가니니에서부터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한 미래의 장인을 상대로 혼인허가 소송을 낸 슈만, 동성애 사실이 알려져 처벌받기 전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차이콥스키까지 클래식 거장들의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담긴 책이 출간됐다.

‘Fun한 클래식 이야기’는 클래식 음악의 기초를 비롯해 엔니오, 살리에리, 비제 등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작곡가들의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클래식 콘서트 기획·진행 등을 하는 클래식포유 대표인 저자 김수연은 희로애락이 담긴 세계적인 거장들의 인간적인 삶의 모습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알기 쉽게 풀어낸다.

저자는 서문에서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음악에는 마법과 같은 힘이 있다. 음악이야말로 현 시대를 채워줄 방법”이라고 전했다.

책은 ‘빨간 머리 신부님’ 비발디를 시작으로 ‘정치인이 된 작곡가’ 베르디, ‘신앙을 음악에 담아낸 작곡가’ 비버, ‘마마보이 작곡가’ 비제 등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또 ‘걸크러쉬 작곡가’ 색션에서는 할데가르트, 파니, 나디아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으며, ‘법정에 선 작곡가’에서는 슈만과 리스트의 에피소드도 담았다. 이밖에 음악을 사랑한 만금이나 조국을 사랑했던 그리그, 파야, 존 윌리엄스의 이야기도 수록했으며 책의 말미에는 ‘클래식 바로 알기’를 통해 클래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QR코드를 통해 저자가 직접 연주한 클래식 음악과 작곡가들에 대한 설명이 담긴 영상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디언·1만48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매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전화 및 배달앱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법무사 이영석사무소

동구법실로 16-1(자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정, 상속, 증여 등 상업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 형사,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 입찰기법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물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맞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보광세탁소

동구지산1동 동명로73-2(구.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법무사 김은희사무소

목포시 정의로26-4 법조하우스 3층

개인회생, 파산면책,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

평화의자소파

북구 양암동 794-13(대자초등학교 옆)

가정용, 영업용 불박이, 료소파, 업소용제작 천장이, 리폼전문, 각종 소파 천장이 수리 및 제작 전문공방

☎ 062)371-2110, 010-9404-3571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법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대연건설

동구 제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간설업·설비·토목·공장·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

매산철거·삼보소개소

북구 자산로 32 (신안동)

건물상가·집수리, 모래운반 폐기물처리, 고철, 파지, 스텐, 특수미장, 조적, 방수, 철근, 콘크리트페인트,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장·인부알선

☎ 062)528-7005~6, 010-3625-2786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